

해양문화경관의 개념 고찰

A Study on the Concept of Maritime Cultural Landscape

김예림 Kim, Yelim*, 성종상 Sung, Jong Sang**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of the Maritime Cultural Landscape, which is commonly used in maritime archaeology but receives less recognition than the internationally accepted Cultural Landscape. It highlights the neglect of oceans and coasts in the Cultural Landscape concept, where the emotional and cognitive aspects felt by the landscape subject are significantly disregarded in the concept of the Maritime Cultural Landscape.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to reevaluate the significance of ordinary Maritime Cultural Landscapes during the modern times.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se concepts, the research contributes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distinctive coastal places, people, and cultures that differ from inland areas. It aims to foster an appreciation for the Maritime Cultural Landscape among the current generation, providing 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and national discussions on its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Furthermore, it serves as a fundamental concept for policies and research related to the Maritime Cultural Landscape in coastal areas.

Keywords: Cultural Landscape, Coastal Areas, Marine Landscape, Ocean Heritage, Historic and Cultural Heritage, Historic Landscape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유산의 새로운 범주로서의 문화경관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UNESCO World Heritage)을 이분법적으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으로만 구분해왔지만, 1992년에 이들의 중간적 형태인 문화경관을 세계유산의 새로운 범주로 인정하였다(성종상 2020). 그리고 이를 보호하

기 위한 최초의 법적 수단이 만들어지면서 문화경관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Rössler 2006).

문화경관은 자연환경이 주는 기회를 활용하고 제약을 극복하는 진화 과정을 보여준다(UNESCO 2021; Rössler 2002). 따라서 문화경관을 해석하는 것은 인류사회의 진화 과정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더불어 문화경관을 세계유산 범주의 하나로 간주하면서까지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 행위의 산물이기도 하면서 거꾸로 인간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성종상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 서울대학교 협동과정조경학 박사수료(제1차) | Researcher, Ocean Economy Strategy Department, Korea Maritime Institute / Ph.D. Candidate, Seoul National University | Primary Author | yelimkim@kmi.re.kr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교신저자) | Professor,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 jssung@snu.ac.kr

2020, 45). 문화경관은 자연과 문화, 유형과 무형유산, 생물과 문화의 접점으로써 관계망, 문화, 사람들의 정체성 등을 나타낸다(Rössler 2006).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현대화를 겪으면서 전통의 홀대와 서구 또는 새것에 대한 맹신적 추종으로 인한(성중상, 이원호 2021) 정체성 상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대가 문화경관의 가치에 공감하고 이를 보존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유지와 계승 측면에서 중요하다.

한편, 문화경관은 내륙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해양 측면에서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바다는 지구 면적의 2/3를 차지하고(UNESCO 2016), 연안지역은 아주 오래 전부터 어업이나 항구·항만 산업과 교류의 중심지였으며 내륙과 구별되는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연안지역에는 역사적 발전 단계를 거치면서 축적된 다양한 역사·문화유산이 있다(김성귀 2013). 2000년대 이후부터 유산의 관점에서 해양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세계 주요 기관에서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 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은 2002년부터 해양유산프로그램(Maritime Heritage Program)을 운영하며 해양유산을 관리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는 2005년부터 세계유산해양프로그램(World Heritage Marine Programme)을 시작으로 해양유산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양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1994년 고선박이나 해저 유물을 중심으로 한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 개관하였고, 2009년에는 연구 기능을 강조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하지만 해양유산을 포함하는 개념인 '해양문화경관(Maritime Cultural Landscape)'은 문화경관 연구에서

나 정책적으로도 아직 큰 관심은 받지 못하고 있다. 유네스코, 미국 해양대기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해양유산을 다루고는 있으나 유네스코는 해양유산 중 자연유산에, 미국 해양대기청은 생태와 해양고고학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해양유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있는 근현대의 일상적 해양문화경관을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문화유산이나 복합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문화경관 관점에서의 해양문화경관의 가치에 대한 논의와 해양문화경관의 개념을 고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해양문화경관이라는 개념은 유네스코가 문화경관을 세계유산의 새로운 범주로 공표한 1992년에 해양고고학자 크리스터 베스테르달(Christer Westerdahl)이 영문 출판물에 처음으로 소개한 이후 지금까지도 많이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로 해양고고학 분야에서만 사용되고 있을 뿐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연구자마다 각기 다른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관련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해양문화경관 관련 선행연구는 시각적 '경관'의 분석·관리(박혜정, 박철민 2017; 최지연, 박수진, 육근형, 장정인 외 2011; 이한석, 이명권 1998; 구분아, 이광국, 양위주 2008; 배경완, 하경준, 박형준, 정주철 2017) 또는 자원 활용의 관점에서 해양관광까지 포함하는 거시적인 '문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창언 2013)가 진행되었으나, 연안지역의 해양문화경관에 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간과되었던 해양문화경관에 대한 논의를 위해 관련 개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해양유산은 재생불가 자원이기 때문에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NOAA Homepage). 해양유산을 포함하는 개념인 해양문화경관에 관한 연구 해석은 이러한 자원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게 해주면서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일반인들도 공감하고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왔던 해양문화경관의 가치에 대한 논의를 위해 그 개념을 통합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추후 연안지역의 해양문화경관 정책 및 연구를 진행하는 기반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초 개념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선행연구 검토

1) 해양문화경관 개념 관련 국외 연구 동향

베스테르달의 해양문화경관 개념은 많은 해양고고학 연구에서 최근까지도 많이 인용되고 있다(Lira 2017; Gusick, Dodds, Jaffke, Meniketti et al. 2019; Duncan 2006; Popta, Westerdahl and Duncan 2019; James, Blue, Rogers and Score 2020; Parker 1999; Harrison 2020; Pierce 2015; Ragan 2001).

국외 해양문화경관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기원전부터(Pierce, 2015) 로마와 중세시대(James, Blue, Rogers and Score 2020; Popta, Westerdahl and Duncan 2019; Parker 1999) 등 오래된 고고학적 유적을 조사하는 연구가 다수 있었다. 가장 오래된 유적을 다룬 Pierce(2015)는 중기 청동기시대부터 철기시대 말까지(기원전 2000년~기원전 539년) 유적 조사를 통해 현대 이스라엘의 중앙 해안 평야에 정착한 패턴을 분석하였다. 로마와 중세시대의 유적을 다룬 James, Blue, Rogers and Score(2020)은 로마와 초기 비잔틴 쿠리온에 있는 트리머스 베이의 해양문화경관을 조사하였고, Popta, Westerdahl and Duncan(2019)은 중세 후기 네덜란드 자위더르헤 지역을 조사하였다. 또한 Parker(1999)는 중세도시의 시작과 13세기 항구 개발의 역사 등에 따

라 형성된 해양문화경관을, Ragan(2001)는 스코틀랜드 남부 아가일 연안지역들의 초기 중세 해상무역 관련 고고학적 해양문화경관을 조사하였다.

비교적 넓은 시간적 범위를 다룬 Lira(2017)는 선사시대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북부 파타고니아의 해양문화경관을 해석하였다. 근현대 시기를 다룬 Harrison(2020)은 17~20세기에 걸친 캐나다와 미국 경계에 있는 세인트 클레어 해양문화경관의 변화에 대해, Duncan(2006)은 19세기 식민지 시기 호주 퀸스클리프의 해양문화경관의 고고학적 증거들을 조사하고 사회적 관계망 분석을 위해 구술-문헌 분석을 진행하였다. Gusick, Dodds, Jaffke, Meniketti et al.(2019)는 특히 해중(海中) 문화유산에 초점을 맞춰 19세기 중반~20세기 초반 캘리포니아의 해양문화경관을 조사하였다.

이제까지 연안지역의 해양문화경관 개념은 해중의 난파선 또는 선사시대나 식민지 이전에 만들어진 고고학 유적지 등을 조사하는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해양고고학 측면에 치중된 베스테르달의 해양문화경관 개념에서 크게 진전되지는 못하였다. 다시 말해, 해양문화경관 개념은 해양고고학 외에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해 관련 개념이 논의되고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2) 해양문화경관 관련 국내 선행연구

이제까지 국내문헌에서 다룬 해양문화경관을 의미하는 개념은 크게 바다와 이를 둘러싼 지역의 시각적 '경관'에만 초점을 맞춘 개념들과 역사적 유산으로서의 연안지역 '문화'에 초점을 맞춘 개념들로 구분해볼 수 있다. 시각적인 '경관'에 초점을 맞춘 용어에는 연안경관, 해양경관, 해안경관 등이 있고, '문화'에 초점을 맞춘 해양문화, 도서해양문화, 해양생태문화경관 등이 있다.

먼저 시각적인 '경관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는 이한석, 이명권(1998), 구분아, 이광국, 양위주(2008), 윤상호, 이종훈, 홍장원, 박상우(2003), 박혜정, 박철민(2017), 권대곤, 이정(2018), 배경완, 하경준, 박형준, 정주철(2017), 최지연, 박수진, 육근형, 장정인 외(2011)가 있다.

이한석, 이명권(1998)은 해양경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시각적인 경관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었고, 구분아, 이광국, 양위주(2008)는 해양경관 사진을 이용해 해양경관의 특성들이 해수욕장의 시각적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윤상호, 이종훈, 홍장원, 박상우(2003)는 해안경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해안지역의 경관 관리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고, 박혜정, 박철민(2017)도 시각적 주제인 인간이 바라보는 해역과 육역을 의미하는 해안경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제주도 애월 해안도로의 건축물 경관요소를 분석하였다. 권대곤, 이정(2018)은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해안경관 개념을 빌려 경남 남해군 가천 다랭이마을 해안경관의 시각적 선호도와 물리적 시각량의 상관성을 평가 분석하여 선호요인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각적 경관에 초점을 맞춘 또 다른 개념인 연안경관 관련 연구로 배경완, 하경준, 박형준, 정주철(2017)는 시각적 측면에서의 부산항 연안경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최지연, 박수진, 육근형, 장정인 외(2011)는 경관 관리 요소를 도출하여 제도적 개선방안과 정책을 제안하였다.

역사적 유산으로서의 연안지역 '문화'에 초점을 맞춘 용어들을 사용한 연구로 김홍섭(2010)은 해양문화의 개념, 이론 정립의 필요성, 도입·확장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일상적 해양문화경관을 다룬 연구에는 김준오, 천득염, 남상철(2010)와 이창언(2013)이 있다. 이

창언(2013)은 해양문화자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특히 일상적 해양문화경관에 해당하는 연안지역의 생활사나 생활문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경남 거제의 역사문화적 유산, 그중에서도 해양사, 해양생활사, 어촌 생활문화 자원을 살펴보고 해양문화자원의 콘텐츠화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김준오, 천득염, 남상철(2010)은 해양생태문화경관과 해양문화경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전남 여수 손죽도의 역사, 문화, 자연 및 해양생태경관의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민가, 돌담, 고살길, 골목길 등 일상적 해양문화경관도 다루었다.

종합하면,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해양문화경관을 의미하는 개념과 용어를 연구자마다 달리 표현하였다. 이에 따라 아직 국내에서는 해양문화경관 개념 고찰이나 그 가치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시각적 경관 평가에서 벗어나 연안지역 사람들의 삶과 좀 더 직접적으로 맞닿아있는, 일상적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화적 중요성을 획득한 해양문화경관의 가치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방법

전술하였듯이, 해양문화경관의 개념은 국외에서는 주로 해양고고학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통용되는 용어와 개념이 아직 없다. 그래서 먼저 해양문화경관의 상위개념에 해당하는 문화경관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문화경관에 대한 개념 정리를 기반으로 해양문화경관의 개념과 중요성을 고찰하였다.

문화경관과 해양문화경관의 개념 고찰 관련 국내외 문헌들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문화경관과 해양문화경관의 개념 고찰 관련 문헌 검색을 위해 검색어를 설정하였다. 문화경관 관

런 국외문헌 검색어로는 'Cultural Landscape'를, 국내 문헌 검색어로는 '문화적 경관'과 '문화경관'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해양문화경관 관련 국외문헌 검색어로는 'Maritime Cultural Landscape'를, 국내문헌에서는 김준오, 천득염, 남상철(2010) 외에는 '해양문화경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문헌이 없어 유사 검색어로 '해양문화', '해양경관', '해안경관', '연안경관'을 설정하였다.

둘째,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하였다. 국외문헌 검색은 Google Scholar를, 해외 박사학위논문 검색은 RISS PDU를, 국내문헌 검색은 DBpia, KISS를 이용하였다.

셋째, 문헌 선정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우선 연구자가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영어와 한국어로 된 문헌만 포함하였고, 제목에 해당 검색어가 포함된 문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관련 문헌은 동료 심사(Peer-review)를 거친 발간물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국내문헌 중 학술지 논문은 KCI 등재지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다수의 학술지 논문에서 인용되고 있는 단행본 중 인용 수 400건 이상인 Sauer(1925), Geertz(1973), Relph(1976)를 포함한 일부 단행본과, 미발간 간행물 중 관련 개념을 심도 있게 다루는 박사학위 논문은 예외적으로 인용하였다. 추가로 국제기구와 국내 법률에서의 정의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개념 고찰 연구로, 문헌은 문화경관과 해양문화경관 관련 '개념'을 다루는 연구들로 선정하였다.

넷째, 제외 기준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중간적 형태인 문화경관을 다루기 때문에 자연유산이나 문화유산 관련 연구들은 제외하였다.

다섯째, 문헌 선정 및 제외 기준에 따라 검토할 문헌을 선정하였다.

여섯째,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해양문화경관 개념의 고찰 결과를 정리하였다.

II. 문화경관의 개념과 중요성

1. 문화경관의 개념

1) 문화와 경관의 개념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을 단순하게 풀이해보면 '문화'와 '경관'이 합쳐진 용어이다. '문화'와 '경관'은 모두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며, 유형적(Tangible)·무형적(Intangible)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

흔히 일상생활에서 '문화'는 예술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문화는 이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네스코는 문화를 "예술과 문학뿐만 아니라 생활방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을 포함하는 사회 또는 사회집단의 독특한 영적·물질적·지적·정서적 특징의 집합"이라고 정의한다(UNESCO 2002, 4).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 「문화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문화는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종합하면, 문화는 비단 예술이나 문학만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라 생활방식, 가치와 신념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집단의 유·무형적 특성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문화는 유형적·무형적 특성을 모두 지닌다.

문화는 사회나 사회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반대로 문화가 사회나 사회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적 학습 과정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특징이 있다(류제현 2009). 이처럼 문화는 단일 개체로 정의할 수 없고,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먹고 입는가 등 우리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형

성한다(Carol-Dekker 2018). 문화는 역동적이고 시스템 그 이상이기때, 한 개인이 문화로 구성되거나, 반대로 문화가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기도 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Carol-Dekker 2018).

인류학자 클리포트 기어츠(Clifford J. Geertz)는 문화분석이란 법칙을 찾는 실험과학이 아니라 의미를 찾기 위해 해석하는 일이라고 하였다(Geertz 1973, 5). 즉, 문화란 의미들의 집합체이며, 문화를 분석한다는 것은 의미를 찾기 위한 해석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경관'이라는 용어는 다의성과 모호성을 지니며(황기원 2011), 다층적인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류제현 2009). 경관은 영어와 다른 유럽 언어들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로, 초기에는 문화 과정의 가치와 연관된 인간이 만든 인공물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됐다(Taylor 2008).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조경학이 도입되면서, 특히 1970년대 이후부터 서양의 '랜즈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를 조경 혹은 조경학으로, '랜즈케이프(Landscape)'를 경관으로 번역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황기원 2011, 30).

우리나라 「경관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경관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회화에서는 경치나 풍경으로 해석되지만, 조경학에서는 경관을 "인간에게 지각된 환경의 국면" 또는 "사람이 눈으로 보는" 보기 좋고 즐길만한 아름다운 "바깥세상의 생김새"라고 정의한다(황기원 2011, 20-50).

로버츠(Roberts Gareth)는 경관에 대해 "자연과 인간(문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였다(Roberts 1994, 113). 시노하라 오사무(篠原 修)는 경관이란 "어떤 대상(경관대상)을 인간(경관주체)이 바라보는 행위에 의해 성립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시노하라 오사무 2010, 3). 그는 경관이란 다수의 대상 또는 대상군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전제된 인간의 심리적 현상이며,

경관대상에 대해 느끼는 이미지와 감정 등이 바라본다는 공간적·시간적 체험 행위 속에 포함된다고 하였다(시노하라 오사무 2010). 그리고 모든 경관은 서로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인지적 측면을 갖고 있다(Jones 2003).

종합해보면, '문화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 집단에서 공유되는 총체적인 '생활방식과 삶의 방식'을 말하는 개념이며, 유형적·무형적 특성을 모두 지닌다. 문화는 사회 구성원의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하고 반대로 문화가 사회 구성원의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한다. 경관은 사람이 지각하는 긍정적 감정이 느껴지는 대상물들의 국면이자,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자연·인공 요소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상 등도 포함한다. 즉, 경관이라는 개념에는 긍정적 '감정'이 느껴지는 다수의 대상물(경관대상)과 이를 바라보는 사람(경관주체)이 필요하며, '인지적 측면'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2) 문화경관의 개념 및 용어 사용의 역사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이라는 용어는 프리드리히 라첼(Friedrich Ratzel 1895-1896)을 시작으로 20세기 초 독일 지리학자들에 의해 사용되었다(Jones, 2003). 1950년대까지도 거의 활자화된 적이 없었다가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학술적 용어로 사용되었다(Wilson, Groth and Groth 2003).

칼 사우어(Carl O. Sauer 1889-1975)에 의해 문화경관은 영어권 나라에 소개되었고, 버클리 지리학과 연구의 주요 주제가 되었다(Jones 2003). 사우어를 중심으로 한 문화지리학자들은 자연경관이 문화경관으로 변화하는 것을 연구하였다(Price and Lewis 1993, 1). 이들은 주로 야외답사를 통해 잔존하는 경관과 유형적 인공물을 기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Price and Lewis 1993, 1; Anderson 2021, 30). 이 학파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과정보다는 문화의 생성물에, 경관이 형성되는 과정보다는 형태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Anderson 2021).

사우어는 1925년 「경관의 형태학(The Morphology of Landscape)」에서 문화경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문화경관은 문화집단에 의해 자연경관으로부터 만들어진다. 문화는 행위자(agent)이고 자연지역은 매체(medium)이며, 문화경관은 그 결과이다.”
(Sauer 1925, 343)

1950~1990년대의 문화역사·사회적 관계 분야 연구자들은 점차 인공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자각하기 시작했다(Wilson, Groth and Groth 2003). 여기서 말하는 인공경관은 건축물이나 교량 등과 같은 인간이 만든 건조물만이 아니라, 인간이 변형한 자연환경까지 모두 포함한다.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대립되는 개념처럼 여겨져 왔다(Jacques 1995). 실제로 2005년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 나오기 전까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기준은 분리되어 있었다. 이후 문화경관은 자연과 문화의 대립 구도에서 점차 자연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변화하면서 생성된 산물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다(문지영 2012, 39).

유네스코는 1992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유산과 사람이 만든 기념물/건축물 등을 의미하는 문화유산 사이의 중간적 형태인 문화경관을 새로운 세계유산 범주로 규정하였다. 문화경관이라는 용어와 개념은 1992년 문화경관을 인증하고 보호하는 세계유산협약(World Heritage Convention)이라는 최초의 법적 수단이 생기면서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Rössler 2006).

문화경관이라는 용어는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포함하는데, 종종 자연

환경의 특성과 한계, 자연과의 특정한 영적 관계,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의 특정 기술을 반영한다(Mitchell, Rössler and Tricaud 2009, 19). 문화경관은 “통시적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자연경관에 인간이 생성한 문화가 개입하면서 문화경관이 형성·변화하는 과정에 주목한다(황기원 2011, 220).

문화경관은 “문화 전파(확산), 자연환경에 대한 적응, 사회-정치적 과정, 권력관계의 산물”로 이해되고 있다(류제현 2009, 106). 그리고 “시대의 가치관”과 “인간의 활동”에 의한 도시공간 변화의 누적으로 이해되고 있기도 하다(배연한 2015, 23).

종합해보면, 문화경관이란 환경-인간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에 따른 유무형적 문화역사·사회적 흔적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변화하는 시대의 가치관과 인간의 문화를 반영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켜켜이 누적되는 퇴적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퇴적물이 형성·변화하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신의 삶과 역사, 의식, 세계를 생산”하고, 역사와 사회 속에서는 자연환경까지도 인간에 의해 변형 또는 생산되기 때문에(Lefebvre 2019, 127-128)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에는 무수히 많은 문화경관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화경관 중에 환경-인간 간 상호작용에 대한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일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한다. 문화경관을 해석한다는 것은 환경-인간의 상호작용과 그 흔적들에서 의미를 찾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인류 사회와 정착의 변화 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세계유산 문화경관의 개념과 중요성

1) 세계유산 문화경관의 개념과 기준

문화경관의 정의에 대해 유네스코는 문화재로서 세계

유산협약 제1조에 명시된 “자연과 인간이 결합한 작품”을 말한다고 했다(UNESCO 2021, 22). 이는 1992년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ICOMOS)와 국제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이 문화경관을 세계유산목록에 포함할 것을 유네스코에 제안하는 보고서에서 사용한 정의이다. 이후 유네스코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각종 선언문과 보고서에서 거의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성종상 2020). 즉, ‘세계유산 문화경관(World Heritage Cultural Landscapes)’은 환경-인간 간 상호작용의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유적지이다(Rössler 2006, 334). 이 문화경관은 자연환경이 주는 물리적 제약/기회/외부 내부의 연속적인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인간 사회·정책의 흔적을 여실히 보여준다(UNESCO 2021, 22).

유네스코는 이러한 세계유산 문화경관을 지정하는 기준에 대해 ① 뛰어난 보편적 가치, ② 대표성 있는 명확하게 정의된 지리·문화적 지역, ③ 지역의 본질적이고 독특한 문화적 요소에 대한 설명력이라고 명시한다(UNESCO 2021, 22). 즉, 문화경관은 뛰어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진정성(Authenticity), 완전성(Integrity) 등 세 가지 기준으로 지정되며, 적절한 보호·관리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있다(UNESCO 2021).

2) 문화경관의 세계유산 등재 의미와 중요성

1990년대에는 문화경관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눈에 띄게 확대되었다(Taylor 2008). 문화경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1992년에는 문화경관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범주 중 하나로 인정하게 되었다. 1972년 유

네스코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은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인정·보호하는 국제기구를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고, 1992년에 이르러야 이 협약은 ‘문화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법적 장치가 된 것이다(Rössler 2002). 1990년대 이후부터는 데이비드 자크(David Jacques)가 ‘문화경관의 부상’이라고 부를 만큼 관련 논의가 많이 진행되었다(Jacques 1995). 또한 최근 아시아의 계단식 논 사례와 같이 기존에는 평범한 것으로 치부되어왔던 문화경관들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고 있기도 하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문화경관’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도입함으로써 오랫동안 이어진 문화와 자연의 이분법적 해계모니를 해결하려고 했다(정해준 2021). 문화경관은 유산의 장소들이 고립된 섬이 아니라 사람, 사회 구조, 경관, 관련 생태계가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인식을 높이려 한 것이다(Taylor and Lennon 2011). 이 관점에서 문화경관이 세계유산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유네스코에서 제시하는 문화경관의 범주 중 특히 ‘연상적 문화경관’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됨으로써 무형적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점과 지역사회와 토착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Rössler 2006). 이 범주에는 종교적·문화적으로 ‘신성한 장소’가 많이 포함되는데, 공식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토착민들은 이 장소들을 보호해왔다(Rössler 2006, 336). 이 장소들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서 그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토착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광지가 되면서 관광객 유입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강동진 2006).

둘째, 국제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지역사회는 전승되어야 할 문화경관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이 생긴다. 즉, 문화경관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인식이 재고되고, 유산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며, 전통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등 유산을 해석하고, 보여주고, 관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Rössler 2006). 국제적 홍보 효과를 누리게 되면서 지역사회에 해당 문화경관을 보전해야 할 동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셋째, 세계유산협약에서 “자연과 인간이 결합한 작품”인 문화경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공하였다(Rössler 2006, 350). 세계유산의 범주에 문화경관을 포함하는 협약 해석의 발전은 무형의 가치를 포함한 보호지역, 특히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장소들과 관련된 다양한 가치의 복잡성과 풍부함을 인식하는 시작점일 뿐이다(Rössler 2006). 이런 포괄적 접근방식은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장소들을 지정 관리하는 데 있어 해당 장소들과 그 주변의 거주민, 보전에 관여하는 공동체, 나아가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중요하다(Rössler 2006).

3. 문화경관의 특성과 분류

1) 문화경관의 특성

문화경관은 자연경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특성이 있다(Sauer 1925). 문화경관은 자연경관에서 파생되며, 인간은 자연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변형의 명백한 주체로 표현한다(Sauer 1925, 333). 다시 말해, 인간이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생존과 번영을 도모할 때 필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문화경관이 형성된다(황기원 2011, 220). 문화경관에서 요인은 ‘문화’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경관이라는 매개체와 상호작용하

여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경관을 생성한다(Melnick, Sponn, and Saxe 1984, 2). 이 때문에 1980년대에는 문화경관을 자연경관과 반대되는 개념이자 자연경관 내에서 인간의 행동과 신념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기도 했다(Melnick, Sponn, and Saxe 1984).

즉, 이러한 장소들은 인간의 행위로 변형된 자연경관이자 자연환경이 ‘인간의 생활과 삶의 방식’을 형성한 곳이다(Beresford and Phillips 2000). 대부분의 문화경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흔적이 일련의 층을 만드는 살아있는 경관이며, 각 층은 인류의 역사와 인간-자연의 상호작용을 나타낸다(Taylor 2008). 정리하면, 문화경관은 인간이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 형성한 삶의 방식이자 자연경관이 인간의 문화/활동으로 변형되면서 만들어지는 흔적의 퇴적물이라 할 수 있다.

문화경관의 요소는 인간 활동의 흔적인 ‘물리적 측면’과 문화적 의미의 ‘인지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Duncan 2004). 각 그룹은 개인적 문화적 신념과 제약에 따라 물리적으로 같은 장소를 다르게 사용하고 이에 따라 해당 장소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면서 여러 개의 중첩되는 문화경관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Duncan 2004). 실제로 거의 모든 경관은 자연과 인간/사회에 대한 영향의 흔적을 보여주며, 이 둘은 서로 분리해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Jones 2003).

자연적이든 인간적이든 간에 물리적 환경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구조화되고 형성되는 방식은 경관의 특징과 장소를 명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이 자체가 매우 문화적인 관행이기에 문화경관은 ‘사물(Things)’이라기보다는 ‘관점(Perspective)’에 가깝다(Jones 2003, 32).

“인간의 작품은 문화경관에서 표현”되며, “문화경관의 형태는 경관을 특징짓는 모든 인간의 작품(Sauer 1925, 333-342)”이다. 인간의 거주지 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경관이 있고, 이는 그 문화경관을 형성한

집단의 문화를 반영한다(류제헌 2009). 따라서 문화경관은 정체성이 있는 경관이며, 반대로 문화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이 문화경관이기도 하다(황기원 2011). 그러므로 “문화경관은 문화의 발전 또는 대체로 인해 변화할 수 있다(Sauer 1925, 333)”.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문화경관을 해석한다는 것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변화하는 문화와 정체성을 더 깊게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경관은 인공경관이자 문화화된 경관이며, 생활경관으로서 평범한 경관과 일부 비범한 경관이 있다(황기원 2011, 220). 이 평범한 경관과 비범한 경관을 시노하라의 용어를 빌려, 인간과의 상호 관련성 정도에 따른 ‘일상적 경관’과 ‘비일상적 경관’이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 그가 말하는 일상적 경관은 인간이 거주하는 도시경관이나 전원경관을 말하고, 비일상적 경관은 웅대한 크기의 국립공원이나 관광지 경관 등이 해당한다(시노하라 오사무 2010).

또한 문화경관은 ‘역사적 경관’을 형성할 수도 있고, 이 중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유산적 경관’이 된다. 즉, “문화재나 문화유산으로 규정되는 것들”이 유산적 경관에 해당한다(황기원 2011, 221). 따라서 역사적 경관으로서의 문화경관은 “기록 경관”이면서 “결과경관이다”(황기원 2011, 221-222). 즉, 인간의 문화행위 자체라기보다는, 행위의 결과물이나 과정 또는 기록된 결과라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경관은 흔적 자체라기보다는 ‘관점’에 가깝고, 유기체처럼 살아있는 경관이기에 형성 변화의 ‘맥락과 과정’을 살펴보는 작업이 중요하다.

2) 문화경관의 특징과 분류

문화경관은 자연과 문화, 유형과 무형유산, 생물과 문화 사이의 접점에 있으면서 밀접하게 잘 짜인 관계망,

문화의 본질, 사람들의 정체성 등을 나타낸다(Rössler 2006). 즉 지역사회와 유산, 인류와 자연환경 사이 근본적 연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상징한다(Rössler 2006).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은 분석과정에서 구분되는 것과 달리, 현실에서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개념적으로 이 둘은 양극단에 있는 존재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스펙트럼처럼 구성된 다양한 경관이 존재한다”(황기원 2011, 222). 즉, 자연유산에 더 가까운 문화경관이 있는가 하면, 문화유산에 더 가까운 문화경관이 있을 수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_문화경관 개념의 전개



주: NL=Natural Landscape, CL=Cultural Landscape.

문화경관의 개념처럼 문화경관의 속성 또한 다양하고 포괄적이다. 문화경관은 다른 사공간에 따른 구성요소, 양상뿐만 아니라 관점에 따른 가치 효용, 의미 상징, 인식, 평가까지 다양하고 다원적이다(성종상 2020). 문화경관의 다양한 속성으로 인해 이에 대한 주제 또한 다양하다. Siririsak and Akagawa(2012)는 태국의 문화경관은 최소 5가지 주제(① 정치, ② 종교, ③ 농업, ④ 토속건축, ⑤ 일상적 경관)로 나뉜다고 했다. 그중 ⑤ 일상적 경관은 옛날뿐만 아니라 현대의 생활양식과 문

화를 반영한다고 하였다(Sirisrisak and Akagawa 2012).

이러한 문화경관은 종교경관, 민속경관, 언어경관, 농촌경관, 도시경관 등으로 분류되며, 상호 관련성을 기반으로 발달하였다(류제현 2009). 또한 시골경관, 역사도시경관, 역사문화경로 등의 문화경관 유형은 최근 유네스코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를 중심으로 세계유산 지정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성종상, 이원호 2021).

하지만, 이제까지 문화경관은 내륙 중심으로 논의되었기에 해양 연안 측면은 상대적으로 간과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문화경관의 분류이자 하위개념 중 하나로 해양문화경관을 추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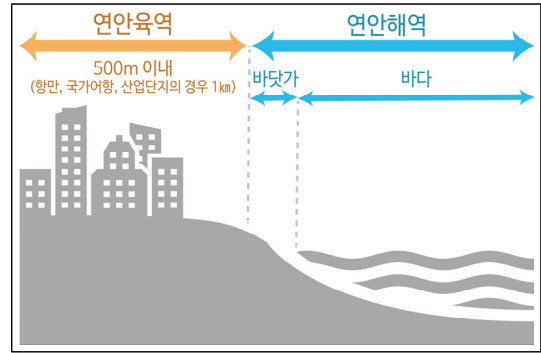
다만, 내륙 중심으로 논의되어온 문화경관의 개념을 해양 연안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해상·해중 해양문화경관은 간과되고 있으며, 해양지명(해상지명, 해저지명), 해녀어업 등 연안지역만의 독특한 문화경관을 다루는 데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I. 연안지역의 해양문화경관 개념과 특징

1. 연안지역의 개념

「연안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연안’이란 연안해역(沿岸海域)과 연안육역(沿岸陸域)을 말한다. 여기서 연안해역은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공간을 말하는 ‘바닷가’³⁾와 해안선으로부터 영해(領海)의 외측한계까지의 사이 공간을 말하는 ‘바다’⁴⁾를 일컫는다. 연안육역은 무인도서 또는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항만, 국가어항, 산업단지의 경우 1km) 이내의 육지지역을 말한다(<그림 2> 참조).

그림 2_연안공간의 정의



자료: 「연안관리법」 제2조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연안지역’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Neumann, Vafeidis, Zimmermann and Nicholls 2015). 주로 연안의 거주인구, 생태환경, 자연재해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나라와 기관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용어도 사용하는 기관 및 연구자에 따라 연안구역(Coastal Zones), 연안지역/해안지역(Coastal Regions/Coastal Areas), 연안도시(Coastal Cities), 연안카운티(Coastal Counties)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유엔은 연안지역에 대해 관점과 자료의 가용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나, 일반적으로는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와 고도의 조합으로 정의된다고 했다(UN homepage). 이와 비슷하게 Crowell, Edelman, Coulton and McAfee(2007, v)도 ‘연안카운티’나 ‘연안구역’을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과정과 공간적 기준에 따라 연안지역은 광범위하게 나타낼 수 있는 용어라 했다.

연안지역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UN Homepage, Eurostat Homepage, Brown and Hausner(2017)는 해안선에서 50km 이내 지역, Creel(2003)은 60km~200km 이내, Small and Nicholls(2003)는 해안선 100km 이내와 해수면 100m 이내, Hinrichsen(1999)은 해안선 200km

3) 바닷가는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연안관리법 제2조 2항 가목).

4) 바다는 “해안선으로부터 영해(領海)의 외측한계(外側限界)까지의 사이를 말한다”(연안관리법 제2조 2항 나목).

이내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최지연, 최일선, 황재희(2021)는 우리나라 연안지역에 대해 연안육역과 연안해역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광역기초자치단체(11개 시도, 74개 시군구)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연안육역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해상·해중의 해양문화경관까지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형태는 가로가 좁고 세로가 긴 형태의 반도로, 동해부터 서해 연안까지의 길이가 약 190km로 가까운 편이다. 만약 전 세계 연안지역 인구를 측정하기 위한 해외기관·문헌에서의 정의를 차용하여 해안선에서부터 100km~200km 이내 거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나라 영토의 대부분이 연안지역이 되어버린다.

이러한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안관리법」과 최지연, 최일선, 황재희(2021)를 참고하여 연안지역을 바다와 더 가까운 범위로 한정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연안지역을 '연안 11개 시도, 74개 시군구에서의 연안해역(바닷가, 바다)과 연안육역(무인도서 또는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항만, 국가어항, 산업단지의 경우 1km) 이내의 육지지역)'으로 정의한다. 다시 말해, 연안육역은 연안 11개 시도 전체 지역 범위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더 가까운 지역으로 한정하면서 연안해역까지 포함하는 공간으로 정의한다.

2. 해양문화경관 개념 고찰의 필요성

1) 연안지역 해양문화경관의 형성과 중요성

연안지역은 바다를 기반으로 어업이나 항만 산업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생업을 위해 바닷가 근처에 거주하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과

의 교류를 위한 항구가 생겨났다. 산업혁명 이후, 작은 항구는 거대한 항만으로 성장했고 지역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이한석 2013). 이 때문에 항만 인근에는 그 도시에서 가장 오래되고 문화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이 존재한다(이한석 2013). 2019년 말 기준, 강동진(2020, 106)이 근대 관련 세계유산 244개소를 대상으로 내륙, 산지, 항구 등 공간 입지별로 분포를 파악해본 결과, 항구지역이 두 번째(40.6%, 101개소)로 많았다. 이는 내륙지역(44.9%, 112개소)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점유율이다. 항구지역이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이유는 산업혁명 이후 물류 유통뿐만 아니라 수운을 통한 노예 수송, 식민지 개척과 전쟁 관련 유산이 근대문화유산에 다수 포함되기 때문이다(강동진 2020).

“연안지역은 해역과 육역의 물리적·생태적·자연적 상호과정에 의해 형성된 독특한 생태공간인 동시에, 인간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상생활 공간”이기에 생태적·환경적·사회적·문화적 가치가 공존하는 공간이다(최지연, 박수진, 육근형, 장정인 외 2011, 7-8). 이러한 연안지역과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물’과는 다른 삶의 조건과 환경에 적응된 생업방식과 의식세계 등을 보여준다(김창수 2021).

이제까지 연안지역의 가치는 생태·환경적 가치에 치중해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연안지역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경관들을 관광과 연계하면서 그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연안지역은 역사적 발전 단계를 거치면서 축적된 역사·문화유산이 있고, 지역 특성에 따라 다채로운 어업문화나 사회문화적 자원은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매력 요인이 된다(김성귀 2013). 온라인상에서 경관 사진 공유를 통해 장소 이미지가 형성되기도 하고, 이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장소들이 주목받기도 한다(Kim and Son 2018). 또한 관광은 쇠퇴한 지역을 재생시키기 위한 수단으

로도 사용되고 있어(김예림 2017) 쇠퇴한 연안지역을 재생시킬 목적으로 해양문화경관을 활용해 관광 연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이렇듯 문화관광이 활성화되면서 항만과 인근 지역의 역사적 건물이나 경관을 보존·복구·활용하는 것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도 확보하게 되었다(이한석 2013). 이에 지속 가능한 보존 및 활용의 관점에서 연안지역의 해양문화경관의 가치와 의미를 재탐색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2) 해양문화경관 논의의 필요성

해양유산은 해양문화경관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유네스코에서는 'Marine Heritage'로, 미국 해양 대기청에서는 'Maritime Heritage'로 통일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해양유산은 최근 들어서야 그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용어의 통일조차 이루어지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198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최초로 해양유적지(Marine Site)가 등재되었으나(UNESCO 2016), 해양유산의 관리에 대한 별다른 진전은 보이지 못했다. 2005년 시작된 세계유산해양프로그램을 계기로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있는 16개의 새로운 해양지역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UNESCO 2016). 유네스코의 해양유산 보호에 대한 의식은 주제별 세계유산의 분류에서도 엿볼 수 있다. 유네스코는 2023년 3월 기준, 167개국 1,157개의 세계유산을 도시, 문화경관, 숲, 해양·연안, 흙으로 만든 건축물 등 5가지의 주제로 분류하면서(UNESCO Homepage), 해당 주제들이 현시점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전승하는 데 중요한 이슈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해양유산의 개념에 대해 미국 해양대기청은 역사적인 난파선이나 선사시대의 고고학 유적지

등 물리적 자원뿐만 아니라 기록문서와 구전 역사와 같은 비물리적인 자원도 포함된다고 하였다(NOAA Homepage). 그중 해양문화유산(Maritime Cultural Heritage)은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수천 년에 걸친 인간의 정착, 탐험, 이주, 바다에서의 수확, 연안공동체 및 해양전통의 유산이라고 하였다(NOAA Homepage). 즉, '해양과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경관'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해양유산'이라는 용어 자체는 자연, 문화, 복합유산을 모두 포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2023년 3월 기준, 열대지방에서 극지까지 37개국에 퍼져있는 유네스코의 해양세계유산(Marine World Heritage) 50개소 중 복합유산 4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연유산으로, 문화유산은 0개이다. 미국 해양대기청 역시 해양유산과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정의에 문화경관이 포함될 듯 보이지만, 생태(국립해양보호구역), 해양고고학, 원주민 문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근현대의 일상적 해양문화경관 측면은 간과되고 있다.

바다는 지구 면적의 2/3를 차지하고(UNESCO 2016),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항해를 통해 다른 나라와 교류하면서 문명을 발전시켜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선사시대부터 다른 나라와 교류했던 흔적인 패총들이 많이 발견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 패총과 같은 선사시대 유적뿐만 아니라 연안지역에는 근현대의 일상적 해양문화경관이 많이 남아있다. 우리나라가 개항하면서 만들어진 연안지역의 일부 근현대 문화유산들은 지자체 기념물로 지정되기도 했으나 소실 훼손된 사례가 많다. 현재 이러한 연안지역의 문화유산 또는 문화경관들은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지정·관리하기도 하나, 그 가치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연과 인간이 결합된 산물을 대표하는 문화자산(성종상 2020, 44)"인 문화경관에 대한 논의

가 해양 분야에서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이제까지 간과되었던 해양세계유산 중 문화유산이나 복합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해양문화경관의 개념을 고찰하고 그 가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더 간과되고 있는 근현대의 일상적 해양문화경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3. 해양문화경관의 개념 및 특징

1) 포괄적인 해양문화의 개념

해양문화라는 용어는 연안지역, 즉 해안선과 가까운 연안육역과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생성되었다. 부연하면, 해양문화는 “대양적 의미보다는 해안을 끼고 있는 해안, 연해, 근해 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를 총칭하는 의미로 이해된다(김창수 2021, 82). 해양문화는 인간과 바다 사이의 관계에서 생성되며, 여기서 바다는 자원이자 장벽 또는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다(Westerdahl 1992; Popta, Westerdahl and Duncan 2019). 다시 말해, 인간이 바다를 자원으로 이용하거나, 바다라는 장벽 또는 위협으로부터 적응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전통, 선박 이용, 항해 기술과 같은 연안지역만의 독특하고 특징적인 문화가 생성된다.

2020년 제정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해양문화는 “해양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정신적·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해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전통과 유산 및 생활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며 해양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인간 활동”이다. ‘문화’ 측면에서 살펴본 정의로는, ‘해양’이라는 공간 또는 대상과 관련된 역사, 지리, 생태, 환경, 인문, 정치, 경제, 건축, 음식 등 다양한 분야의 산물(의식, 인식, 양식, 물질)을 아우른다고 하면서(홍

장원, 윤인주, 최일선, 이정아 2017) 해양과 관련된 유무형의 산물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와 유사하게 해양문화의 정의에 대해 “해양을 둘러싼 자연과 인간 간의 문화현상을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개념”이라고 하기도 했다(아시아퍼시픽해양문화연구원 2015, 5). 그리고 해양문화의 하위 범주에 해양역사(해양사), 해양민속(해양생활사), 수중고고, 해양문학·예술, 해양레저스포츠, 해양관광, 해양환경문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해양문화는 연안지역 거주민의 생활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김창수 2021) 연안지역에서 발견되는 일상적 해양문화경관까지도 포함하는 더욱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해양문화경관 개념과 그 특징

연안지역에서의 문화경관은 베스테르달이 해양고고학 관점에서 처음 사용한 ‘해양문화경관’이라는 개념이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다. 베스테르달이 말하는 해양문화경관의 개념은 그가 게재한 여러 연구를 거치면서 확장·검토되었으나 해당 연구들이 영문으로 되어 있지 않아 1992년에 소개한 해양문화경관 개념이 주로 인용되고 있다(Evans and Keith 2011). 해양문화경관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1978년과 1980년에 베스테르달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고, 1975~1980년 스웨덴 노틀란트 해안의 해양고고학 조사를 하는 동안 육역과 수중의 해양문화 유적을 통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과학적 용어로 사용하였다(Westerdahl 1992). 엄밀히 말하면, 이 조사에서는 연안육역보다는 해역 중에서도 해중 유적에 초점을 맞췄다(Westerdahl 1992).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육역과 해역 자원 관련 연구들이 진행은 되었지만, 영문 출판물에서 ‘해양문화경관’이라는 개념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92년 베스테르달에 의해서였다(Gusick, Dodds, Jaffke, Meniketti et al.

2019). 베스테르달이 말하는 해양문화경관의 개념은 그가 게재한 여러 연구를 거치면서 확장·검토되었으나 영문으로 되어 있지 않아 1992년에 소개한 해양문화경관 개념이 주로 인용되고 있다(Evans and Keith 2011).

베스테르달은 해양문화경관이란 “정주, 어업, 수렵, 해운 등 선박을 통한 인간의 해양공간 (경제) 활용과 도선, 등대, 해상표식 유지 등 그에 수반되는 하위문화를 의미한다”고 했다(Westerdahl 1992, 5).

그중 문화적 측면에서의 해양문화경관은 “오래된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해 경로의 전체 네트워크, 연안을 따라 위치한 항구와 항만, 그와 연관된 건축물과 인간 활동의 유적, 수중뿐만 아니라 육상으로 구성된다(Westerdahl 1992, 6)”. 고고학은 물질적인 유물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해양고고학에 포함될 수는 없는 반면, 해양문화경관에서는 비물질적, 인지적/지표적인 것이 중요하다(Westerdahl 1992). 이 맥락에서 그는 문화적 측면에서의 해양문화경관의 주요 구성요소이자 해양고고학 조사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명경관(Place-name Landscape)이라 했다.

베스테르달은 해양문화경관이라는 새로운 용어에 대해 육역이 단순히 해양으로 확장된 개념이 아니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화경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화의 층이 겹겹이 쌓이는 특징과 같이 해양문화경관 또한 그러하다. 같은 방식으로 해양경관은 연대기적인 층화 패턴을 나타내면서 새로운 시스템이 이전의 오래된 시스템 위에 중첩된다(Westerdahl 1992). 다만 여기서 차이점은 해양문화경관의 경우 ‘문화적 층(Cultural Layers)’이 육역뿐만 아니라 수중에도 집중된다는 점이다(Westerdahl 1992). 그리고 해양공간은 육역에 비해 행동반경이 더 넓고, 개방성을 보인다(Westerdahl 1992) 특징이 있다. 베스테르달은 이런 해양문화경관을 찾을 수 있는 출처의 범주를 ① 난

파선, ② 연안육역의 유적, ③ 사용의 전통, ④ 자연지형 연구, ⑤ 지명 5가지로 나누었다(<표 1> 참조).

표 1_해양문화경관의 범주

구분	범주	내용
①	난파선	구술 또는 기록자료로 나타나는 사용 및 날짜 표시기로서의 난파선
②	연안육역의 유적	집이나 오두막 기초, 그물 건조대, 무덤 돌무덤, 교회 마당, 항해 표식, 봉화, 돌 미로 등의 해안가에 보존된 고대 기념물
③	사용의 전통	일반적인 연안사람들의 인지지도로 나타나는 지역 해양경험과 전통
④	자연지형 형성	자연항만육역 사용에 대한 전통을 찾기 위한 자연적으로 생성된 피난처(natural havens)로 현재는 육지의 용기 및 토사 등으로 인해 종종 연안육역에 있는 지역이 됨
⑤	지명	암초 관련, 항해경로(항구, 난파선 등), 보트 하우스, 연안육역과 살아있는 전통 등 관련 지명

정리하면, 베스테르달의 해양문화경관 개념은 육지와 바다를 결합한 고고학적 개념이다. 특히 베스테르달의 해양문화경관 관련 초기 연구(1978~1980년)는 해중의 난파선 등의 해양문화 흔적들의 조사에 치중되어 있었다. 1992년부터는 지명경관과 같은 비물질적이고 인지적인 해양문화경관의 조사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개념을 확장하였다.

베스테르달의 전통적인 ‘해양문화경관’ 모델은 역사적인 해양경관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Gusick, Dodds, Jaffke, Meniketti et al. 2019). 이에 해양문화경관 개념은 여전히 오래된 해양사를 조사하는 연구에서 주로 인용되고 있다. 해양문화경관 개념을 적용한 관련 연구들은 많은 경우 선사시대부터 로마, 중세, 근대에 이르기까지 넓은 시간적 범위를 다루기에 경관주체보다는 문화·역사·사회적 흔적들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렇다 보니 근현대의 일상적 해양문화경관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다. 또한 해양문화경관 개념에서는 문화경관 개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경관주체가 느끼는 감정과 인지적인 측면을 상대적으로

로 간과하고 있다.

앞서, 문화경관은 흔적 자체라기보다는 ‘관점’에 가깝고, 유기체처럼 살아있는 경관이기에 형성·변화의 ‘맥락과 과정’을 살펴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서술한 바 있다. 해양문화경관의 맥락과 과정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 경관주체의 인지적 측면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의 삶과 밀접한 근현대의 일상적 해양문화경관도 다룰 필요가 있다.

IV. 해양문화경관의 개념 고찰

‘경관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해안선 위 영토를 기반으로 한 개념이었다(Gusick, Dodds, Jaffke, Meniketti et al. 2019). 하지만 해양환경에 의존하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장소·문화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영토 기반의 인식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Gusick, Dodds, Jaffke, Meniketti et al. 2019). 이러한 맥락에서 해양관점까지도 고려한 문화경관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문화경관의 관점에서 앞서 살펴본 해양문화, 해양문화경관, 해양유산 개념 간의 체계를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해양문화는 해양문화경관뿐만 아니라 해양역사, 수중고고, 해양예술, 해양관광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해양문화의 하위개념인 해양문화경관 개념은 비일상적 해양문화경관과 일상적 해양문화경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일상적 해양문화경관 중 세계적·국가적으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정되고 보호받는 것이 해양유산이 된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 범주 구분기준을 해양유산에 적용해보면, 해양자연유산, 해양문화유산, 해양복합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비일상적 해양문화경관 중 해양유산이 될 수 있는 유형은 해양문화유산과 해양복합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우리는 이중 이제까지 소홀히 다루어졌던 일상적인 해양문화경관에 대한 가치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림 3_해양문화, 해양문화경관, 해양유산 간 체계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는 관련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해양문화경관에 대해 ‘연안지역이나 해상·해중에서 발견되는 해양환경과 인간(문화) 간 상호작용의 유·무형적 산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해양문화경관은 기존 문화경관 개념의 하위개념 중 하나로 규정될 수 있으며, 해양과 연안지역만의 독특한 특수성과 지역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해양문화경관은 “기존의 경관 개념에 해양이라는 특수성이 가미되고 지역성을 내포한 독특한 문화자원으로 이해해야 한다(김준오, 천득연, 남상철 2010, 167)”. 이러한 해양문화경관 개념을 해중의 난파선이나 선사시대 고고학 유적지와 같은 해양역사뿐 아니라, 지역적 가치는 있지만 이제까지 보호받지 못했던 연안지역에서의 근현대의 일상적 해양문화경관의 가치를 재고하는 데까지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특히 이 근현대의 일상적인 해

양문화경관의 가치를 재고하기 위한 경관주체의 감정과 인지적 측면도 파악해야 함을 강조한다.

문화경관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범주의 하나로 인정된 지 30년이 지났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연안지역 해양문화경관의 소실 훼손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관심은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륙과 비교해서도 인구소멸위험이 더 커서 연안지역의 문화경관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도 최근 수중유산의 소실에 대한 우려와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ICOMOS and ICUCH 2022).

우리나라 연안지역에는 일제강점기의 잔재 또는 평범한 경관으로 치부되어 이미 소실되었거나 훼손될 위험에 처한 해양문화경관이 많다. 근현대 해양문화경관은 항만이 있는 연안도시들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많이 남아있다. 특히 1876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항한 부산을 포함해 인천, 목포, 군산 등에는 다양한 근현대 해양문화경관이 남아있다.

한편, 최근 들어 근현대의 산업경관이나 일상적 경관에 해당하는 문화경관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있다. 베니스 헌장(1964~1994) 이후 문화유산의 개념은 계속해서 확장되었고(Goetcheus and Mitchell 2014), 그 대상도 변화하고 있다. 즉, 유산의 대상이 건축물 등과 같은 '점'적에서 '면'적으로, 역사적 의미 중심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도시나 인공물 위주에서 농촌이나 자연경관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문화경관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성종상 2020). 이에 따라 특정 기념물 사이트에서 더 큰 경관으로, 로컬(Local) 규모에서 지역(Regional)과 국가 규모로, 정적 구조에서 동적 과정으로 유산의 개념과 보존 이론이 전환됐다(Goetcheus and Mitchell 2014). 특히 공간적으로도 점적인 역사적 기념물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주변

지역까지도 개념에 포함하여 좀 더 면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부연하면, 베니스 헌장에서는 역사적 기념물 정의에 대해 "단일 건축 작품뿐만 아니라 특정 문명, 중요한 발전 또는 역사적 사건의 증거가 발견되는 도시 또는 시골 환경(Setting)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The Venice Charter 1964). 그리고 여기서 '환경'이라는 용어는 명확하게 정의되지는 않았으나, 용어상으로는 유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유산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은 기념물 주변 지역임을 암시한다(Goetcheus and Mitchell 2014, 344). 이후 1965년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에서 '기념물'과 '유적지'를, 1968년 유네스코에서 '문화재'와 '환경'을 모두 기념물/문화재의 일부로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면서(Goetcheus and Mitchell 2014) 베니스헌장에서 말한 '환경'이 역사적 기념물의 주변 지역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역사적 기념물의 개념은 단일 건축 작품뿐만 아니라 특정 문명, 중요한 발전 또는 역사적 사건의 증거가 발견되는 도시 또는 시골 환경(setting)을 포함한다. 이것은 위대한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화적 중요성을 획득한 과거의 보통 수준 작품에도 적용된다." (The Venice Charter 1964)

그뿐만 아니라 베니스 헌장에서는 "세계유산으로서 역사적 기념물조차 단순히 특성의 위대한 물질 대상만이 아니라 시간 경과에 따라 문화적 중요성을 획득한 근대의 성과물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성종상, 이원호 2021, 173)". 이렇게 세계유산을 다루는 유네스코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등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유산개념과 범주가 확장됨에 따라(성종상, 이원호 2021) 1992년부터 세계

유산에 문화경관이 포함되었고, 최근에는 일상적 경관의 가치를 재고하는 노력도 보인다.

역사적·예술적 기념물 등과 같은 정태적이고 엘리트 중심적인 유산 중심에서,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지닌 살아있는 유산”이나 산업유산 등도 문화유산의 범주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성종상, 이원호 2021, 173-174). 그뿐만 아니라 최근 유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구 중심적 시각에서의 합리성이나 객관성이 아닌, “해당 유산의 주체 관점에서의 주관적인 가치 평가”가 중요해졌다(성종상, 이원호 2021, 174). 다양성 상실 시대의 해결방안으로 문화경관 개념을 기반으로 한 “생태적 건전성과 문화적 다양성의 증거인 ‘일상적 경관’이 정책의 대상”이 되었고, 최근에는 도시공간과 소규모 공간에까지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정해준 2021). 경관은 장소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활동을 유발하기도 한다(김예림, 손용훈 2017). 즉, 정체성 상실의 위협을 받는 현시대에 경관은 장소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유형적인 물리적 환경과 무형적인 활동 경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근현대의 일상적 해양문화경관의 가치까지도 강조할 수 있는 개념의 고찰과 그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근현대의 일상적 해양문화경관을 경관주체의 감정과 인지적 측면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이제까지 산발적으로 정의되어온 해양문화경관 관련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문화경관 개념에서는 해양과 연안이, 해양문화경관 개념에서는 문화경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경관주체가 느끼는 감정과 인지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왔음

을 지적하였다. 특히 우리의 삶과 밀접한 근현대의 일상적 해양문화경관의 가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경관의 개념은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하지만 이를 긍정적인 관점으로 다시 본다면, 창의적인 시각에서 해중·해상 그리고 일상적인 영역까지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화경관 개념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특성을 기반으로 해양문화경관 개념을 고찰해보면,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진다. 해양문화경관 개념을 단순히 해중의 난파선이나 해양고고학 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지역적으로 가치는 있지만 이제까지 보호받지는 못했던 근현대의 일상적 해양문화경관까지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최근 들어 다양한 문화경관과 가능성을 보유한 연안지역은 최근 지역소멸 위기를 겪으면서(김예림, 성종상 2023) 해양문화경관의 소실 훼손 위험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안인구는 감소하고 있어(최지연, 최일선, 황재희 2021) 해양문화경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해양문화경관의 보존·활용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에서 다룬 해양문화경관의 개념은 국가중요어업유산이나 부산미래유산 등과 같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전승할 가치가 있는 연안지역의 해양문화경관을 보존·활용하는 새로운 사업 추진 시 기본 개념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해양문화경관 사례를 해석하는 부분까지는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특정 연안지역을 사례로 해양문화경관의 개념과 요소를 적용해서 이를 해석하고 그 가치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소의 혼은 그 경관 안에 있다(Relph 1976, 30)”. 특정한 장소의 정체성은 숨겨진 내적 힘, 즉 ‘내재하는 신(A God Within)’이 있어서 수많은 외적 변화를 겪으면서도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Relph 1976, 31). 이러한 맥락에서 그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산물이자 반대로 사람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하는 문화경관은 해당 지역, 사람,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파악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문화경관은 흔적이라기보다는 관점에 가깝고, 살아있는 경관이기에 형성·변화의 맥락과 과정을 살펴보는 작업이 중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근현대의 일상적 해양문화경관 형성·변화의 맥락과 과정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 경관주체의 인지적 측면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진행된 유산·문화경관 연구들에서 해양 연안은 간과되었던 영역이었다. 문화경관 개념은 내륙과 해양을 포괄하는 것으로, 그동안은 내륙 중심으로 논의되어왔기에 상대적으로 해양은 소홀히 다루어졌다. 본 연구는 해양문화경관 관련 개념들의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내륙과 구별되는 연안지역의 장소, 사람, 문화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현세대가 해양문화경관의 가치에 공감하고, 보존·활용 방안논의에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안지역 해양문화경관 정책 및 연구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강동진. 2006. 세계문화유산의 완충구역 관리 개념 정립. 국토계획 41권, 1호: 7-20. Kang Dong-Jin. 2006. Establishment of Buffer Zone Management Concept for the World Cultural Heritage in Korea.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41, no.1: 7-20.
2. _____. 2020. 근대기 세계유산에 대한 판단. 세계유산의 새로운 해석과 전망: (사)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창립 20주년 기

념. 97-142.
Kang Dong Jin. 2020. *Evaluating World Heritage of the Modern Era. New Interpretation and Prospect of World Heritage. Commemorating the 2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National Committee of the ICOMOS.* 97-142.

3. 경관법. 2019. 법률 제15460호(2018. 3. 13., 타법개정). 제2조 제1항.
Landscape Act. 2019. Act No.15460(2018. 3. 13., Amendment by Other Act). art.2, sec.1.
4. 구본아, 이광국, 양위주. 2008. 환경심리학적 관점에서의 해양경관의 구성요소와 태도에 관한 연구: 해수욕장 경관의 시각적 선호도 분석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0권, 2호: 51-65.
Gu Bon-A, Lee Kwang-Kook, Yhang Wii-Joo. 2008. The Effect of Coastal landscape Components on Attitude from Environmental Psychology:A Study on Visual Preference of the Urban Beach Landscapes.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20, vo.2: 51-65.
5.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https://www.seamuse.go.kr/> (2023년 3월 27일 검색).
Seamuse homepage. <https://www.seamuse.go.kr/> (accessed March 27, 2023).
6. 권대곤, 이정. 2018. 남해 다랭이마을 해안경관의 시각적 선호도와 물리적 시각량의 상관성 분석. *도서문화* 51권, 191-220.
Kweon Dae-Gon and Lee Jeong. 2018.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Visual Preference and Physical Visual Quantity of the Coastal Landscape at Darangyi-village, Namhae. *Island Culture* 51: 191-220.
7. 김성귀. 2013. 항만도시와 해양관광. 항만과 도시. 김춘선, 김성귀, 이재완, 이성우, 박승기, 이한석, 임영태, 류재영. 165-197. 서울: 블루엔노트.
Kim Sunggui. 2013. Port City and Maritime Tourism. In *Port and City*. Kim Chunseon, Kim Sunggui, Lee Jaewan, Lee Sungwoo, Park Seunggi, Lee Hansuk, Im Yeongtae, Ryu Jaeyeong. 165-197. Seoul: Blue and Note.
8. 김예림. 2017. 전통시장의 관광지화 및 지원정책에 대한 이용객들의 인식: 통인시장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45, no.6: 76-89.
Kim, Yelim. 2017. Perception of Visitors on Traditional Marketplaces becoming Tourist Attractions and Supporting Policies: Focused on Tongin Market, Seoul. *Journal of the*

-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5, no.6: 76-89.
9. 김예림, 성종상. 2023. SNS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부산 영도의 관광객 핫플레이스 도출 및 유형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5, no.1: 121-141.
Kim, Yelim and Sung, Jong Sang. 2023. Analyzing tourism hotspots and types of Yeongdo, Busan through social media text mining.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35, no.1: 121-141.
 10. 김예림, 손용훈. 2017. 이화동 벽화마을 주민과 관광객간의 장소 정체성 인식 및 경관 선호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5, no.1: 105-116.
Kim, Yelim and Son, Yong-Hoon. 2017. Difference of Place Identity Perception and Landscape Preference between Residents and Tourists in Ihwa-dong Mural Villag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5, no.1: 105-116.
 11. 김준오, 천득염, 남상철. 2010. 여수 손죽도의 해양생태문화 경관 고찰. *한국도서연구* 22권, 4호: 163-183.
Kim Juno, Cheon Deuk-Youm, Nam Sang-Chul. 2010. An Analysis on the Sea-based Ecology Cultural Landscapes of Sonjukdo, Yeosu. *Korean Islands Research* 22, no.4: 163-183.
 12. 김창수. 2021. 해양문화의 개념과 과제. 바다를 등진 해양도시. 권기영, 김창수, 손동혁, 송승석, 심진범. 81-98. 서울: 다인아트.
Kim Changsu. 2021. The concept and challenges of maritime culture. In *Maritime Cities by the Sea*. Kwon Giyeong, Kim Changsu, Son Donghyeok, Song Seungseok, Shim Jinbeom. 81-98. Seoul: Dine Art.
 13. 김홍섭. 2010. 우리나라 새로운 해양문화의 도입과 확장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6권, 4호: 269-288.
Kim, Hong-Seop. 2010. A Study on the introduction and expansion Strategy of New Maritime Culture in Korea.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27, no.4: 269-288.
 14. 류제현. 2009. 한국의 문화 경관에 대한 통합적 관점. *문화역사지리* 21권, 105-116.
Rye Je-Hun. 2009. An Integrated Perspective on the Korean Cultural Landscape. *Cultural and Historic Geography* 21: 105-116.
 15. 문지영. 2012. 조선시대 교량의 문화경관 해석: 연결, 교감, 상징.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Moon Sie Young. 2012. (A) Study on the Bridges of the Joseon Dynasty as Cultural Landscape: Connection, Communion, Symbol.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6. 문화기본법. 2021. 법률 제18379호(2021. 8. 10., 일부개정). 제3조.
Framework Act on Culture. 2021. Act No.18379(2021. 8. 10., Partial Amendment). art.3.
 17. 박혜정, 박철민. 2017. 해안경관 관리를 위한 건축물 경관요소 분석에 관한 연구-제주시 애월 해안도로변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9권, 4호: 77-85.
Park, Hye-Jung Park, Chul-Min. 2017. A Study on Analysis of the Building Landscape Elements for Coastal Landscape Management: Focused on Buildings along the Coastal Road in Aeowal, Jeju.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Rural Architecture* 19, no.4: 77-85.
 18. 배경완, 하경준, 박형준, 정주철. 2017. 연안경관 개선을 위한 항만재생 방안-부산항의 항만기능 재편을 중심으로. *한국경관학회지* 9권, 1호: 41-55.
Bae Kyungwan, Ha Gyoung-Jun, Park, Hyung-Jun and Jung Ju-Chul. 2017. The Port Regeneration to Improve Coastal Landscape: Focusing on the Reorganization of Functions of Busan Port. *Korea Landscape Research* 9, no.1: 41-55.
 19. 배연한. 2015. 부산 영도의 도시경관 변천: 문화경관적 관점.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Bae Yeon-Han. 2015. *The Transition of the Urban Landscape of Yeongdo District in Busan: The Perspective of Cultural Landscape*. Ph.D. Dissertation. Kyung Sung University.
 20. 성종상. 2015. 기념물에서 경관으로: 문화경관으로 본 세계 문화유산. *건축* 59권, 12호: 21-24.
Sung Jong-sang. 2015. From Monument to Landscape-World Cultural Heritage Seen from Cultural Landscape Perspective. *Architecture* 59, no.12: 21-24.
 21. _____. 2020. 세계유산으로서 문화경관의 가치와 의미 재조명. 세계유산의 새로운 해석과 전망: (사)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창립 20주년 기념. 43-95.
ICOMOS-KOREA. Sung Jong-sang. 2020. Reinventing the Value and Meaning of Cultural Landscape as World Heritage. In *New Interpretation and Prospect of World Heritage. Commemorating the 2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National Committee of the ICOMOS*. 43-95. ICOMOS-KOREA.
 22. 성종상, 이원호. 2021. 조경으로 보는 역사와 전통: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문화유산. *한국 조경의 새로운 지평*. 성종상 편. 168-179. 서울: 도서출판 한숲.

- Sung Jong-sang and Lee Wonho. 2021. History and Tradition through Landscape Architecture: Cultural Heritage for a Better Future. In *New Horizons of Korean Landscape*. eds. Sung Jong-sang. 168-179. Seoul: Hansoo pub.
23. 시노하라 오사무. 2010. 경관분석과 경관계획. 배현미, 김종하 역. 경기: 내하출판사.
Shinohara Osamu. 2010. Landscape analysis and landscape planning. trans. Bae Hyeonmi, Kim Jongha. Gyeonggi: Naeha Publish.
24. 아시아피시픽해양문화연구원. 2015. 해양문화자원의 발굴·계승 및 활용방안 연구. 세종: 해양수산부.
Asia Pacific Ocean and Culture Center. 2015. *Research on the discovery, succession and utilization of marine cultural resources*. Sejong: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5. 연안관리법. 2023. 법률 제19415호(2023. 5. 16., 타법개정). 제2조 제2항.
Coast Management Act. 2023. Act No.19415(2023. 5. 16., Partial Amendment). art.2, sec.2.
26. 윤상호, 이종훈, 홍장원, 박상우. 2003. 해안지역의 경관관리 방안 연구. 부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Yoon Sangho, Lee Jonghun, Hong Jangwon and Park Sangwoo. 2003. *A Study on Landscape Management Plans in Coastal Areas*. Busan: Korea Maritime Institute.
27. 이창언. 2013. 남해안 어촌지역 해양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 경남 거제시 구조라리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54권, 381-410.
Lee Chang-Un. 2013. A Case Study on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Resource of Maritime Culture of Fishing Village in the Southern Coast of Korea. *Journal of Korean Cultural Studies* 54: 381-410.
28. 이한석. 2013. 항만의 변화와 항만도시의 재생. 김춘선, 김성귀, 이재완, 이성우, 박승기, 이한석, 임영태, 류재영. 항만과 도시. 201-239. 서울: 블루앤노트.
Lee Hanseok. 2013. Changes in ports and regeneration of port cities. In *Port and City*. Kim Chunseon, Kim Sunggui, Lee Jaewan, Lee Sungwoo, Park Seunggi, Lee Hansuk, Im Yeongtae, Ryu Jaeyoung. 201-239. Seoul: Blue and Note.
29. 이한석, 이명권. 1998. 해양경관의 시각적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9, 169-181.
Lee Hanseok and Lee Myungkwon. 1998. On the Visual Assessment of Seascape. *Journal of Port and Harbor Research*, 9, 169-181.
30. 정해준. 2021. 문화경관: 인간 문화와 자연환경의 상호 작용. 한국 조경의 새로운 지평. 성종상 편. 196-209. 도서출판 한숲.
Jung Haejun. 2021. Cultural Landscapes: Interactions between human culture and the natural environment. In *New Horizons of Korean Landscape*. eds. Sung Jong-sang. 196-209. Hansup Publish.
31. 최지연, 박수진, 육근형, 장정인, 최희정, 정지호. 2011. 연안 경관 유형분류와 관리제도 분석 연구. 부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Choi Jiyeon, Park Sujin, Yuk Geunhyeong, Jang Jeongin, Choi Huijeong and Jung Jiho. 2011. *Study on the Coastal Landscape Categorization and Management Framework Analysis*. Busan: Korea Maritime Institute.
32. 최지연, 최일선, 황재희. 2021. 연안-해양 지역발전 종합 진단 및 분석, 부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Choi Jiyeon, Choi Ilsun and Hwang Jaehee. 2021. *Comprehensive diagnosis and analysis of coastal and marine regional development*. Busan: Korea Maritime Institute.
33.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1. 법률 제 17058호(2020. 2. 18., 제정). 제2조.
Act on Promotion of Marine Education and Marine Culture. 2021. Act No.17058(2020. 2. 18., New Enactment). art.2.
34. 홍장원, 윤인주, 최일선, 이정아. 2017. 해양문화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부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Hong Jangwon, Yoon Inju, Choi Ilsun, Lee Jeonga. 2017. *A Study on the Directions of Marine Cultural Policy*. Busan: Korea Maritime Institute.
35. 황기원. 2011. 경관의 해석.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Hwang Giwon. 2011. *Interpretation of Landscape*.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36. Anderson, J. 2021. *Understanding cultural geography: Places and traces*. Routledge.
37. Beresford, M., and Phillips, A. 2000, January. Protected landscapes: A conservation model for the 21st century. *Forum. The Journal of George Wright Society*. 17, no. 1: 15-26.
38. Brown, G., and Hausner, V. H. 2017. An empirical analysis of cultural ecosystem values in coastal landscapes. *Ocean and Coastal Management*, 142, 49-60.
39. Carol-Dekker, L. 2018. Maritime culture: A sociological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time History*, 30(2),

- 302-314.
40. Creel, L. 2003. Ripple effects: population and coastal regions. In *Washington, DC: Population reference bureau*. 1-7.
 41. Crowell, M., Edelman, S., Coulton, K., and McAfee, S. 2007. How many people live in coastal areas?. *Journal of Coastal Research*, 23(5), iii-vi.
 42. Duncan, B. 2004. Risky business, the role of risk in shaping the maritime cultural landscape and shipwreck patterning: A case study application in the Gippsland region, Victoria. *BULLETIN-AUSTRALIAN INSTITUTE FOR MARITIME ARCHAEOLOGY*, 28, 11-24.
 43. _____. B. G. 2006. *The maritime archaeology and maritime cultural landscapes of Queenscliffe: A nineteenth century Australian coastal community*. Ph.D. dissertation, James Cook University.
 44. Eurostat Homepage,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Glossary:Coastal_region (accessed March 27, 2023)
 45. Evans, A. M. and Keith, M. E. 2011. Potential contributions of a maritime cultural landscape approach to submerged prehistoric resources, Northwestern Gulf of Mexico. *The archaeology of maritime landscapes*, 163-178.
 46. Geertz, C.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Basic Books, Inc.: New York.
 47. Goetcheus, C., and Mitchell, N. 2014. The Venice Charter and cultural landscapes: Evolution of heritage concepts and conservation over time. *Change Over Time*, 4(2), 338-357.
 48. Gusick, A. E., Dodds, T., Jaffke, D., Meniketti, M., and Ball, D. 2019. Defining Maritime Cultural Landscapes in California. *California Archaeology*, 11(2), 139-164.
 49. Harrison, D. F. 2020. *Transformation of the St. Clair Maritime Cultural Landscape from the Seventeenth to the Twentieth Centuries*. Ph.D. Dissertation. Wayne State University.
 50. Hinrichsen, D. 1999. *Coastal waters of the world: trends, threats, and strategies*. Island Press. 2.
 51. ICOMOS and ICUC. 2022. *Heritage at Risk Special Edition: Heritage Under Water at Risk: Threats, Challenges and Solutions*. ICOMOS.
 52. Jacques, D. 1995. The rise of cultural landscapes.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 no.2: 91-101.
 53. James, S., Blue, L., Rogers, A., and Score, V. 2020. From phantom town to maritime cultural landscape and beyond: Dreamer's Bay Roman-Byzantine 'port', the Akrotiri peninsula, Cyprus, and Eastern Mediterranean maritime communications. *Levant*, 52, no.3: 337-360.
 54. Jones, M. 2003. The concept of cultural landscape: discourse and narratives. In *Landscape interfaces: cultural heritage in changing landscapes*, 21-51.
 55. Kim, Y. and Son, Y. H. 2018. The Role of Tourist Behaviour in The Determination of Tourist Attractions Emerging tourist destinations in Jeju Island, South Korea through self-wedding photography. *International Review for Spatial Plann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6, no.4: 62-75.
 56. Lefebvre, H. 2019. *La production de l'espace*. trans. Yang Yeongran. Ecolivres.
 57. Lira, N. 2017. The Maritime cultural landscape of northern Patagonia. *Journal of Maritime Archaeology*, 12, 199-221.
 58. Melnick, R., Spohn, D., and Saxe, E. J. 1984. *Cultural landscapes: Rural historic districts in the national park system*. Park Historic Architecture Division, Cultural Resources Management, National Park Service,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59. Mitchell, N., Rössler, M., Tricaud, P. 2009. *World Heritage cultural landscapes- a handbook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UNESCO.
 60. Neumann, B., Vafeidis, A. T., Zimmermann, J., and Nicholls, R. J. 2015. Future coastal population growth and exposure to sea-level rise and coastal flooding-a global assessment. *PLoS one*, 10, no.3: e0118571.
 61. NOAA Homepage, <https://www.noaa.gov/> (accessed March 27, 2023).
 62. Parker, A. J. 1999. A maritime cultural landscape: the port of Bristol in the Middle Ages. *International Journal of Nautical Archaeology*, 28, no.4: 323-342.
 63. Pierce Jr, G. A. 2015. "*The Territory Facing Jaffa*": *Cultural Landscapes of a Mediterranean Port and its Hinterland (ca. 2000-539 BC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64. Popta, Y. T., Westerdahl, C. L., and Duncan, B. G. 2019. Maritime Culture in the Netherlands: accessing the late medieval maritime cultural landscapes of the north-eastern Zuiderzee. *International Journal of Nautical Archaeology*, 48, no.1: 172-188.

65. Price, M., and Lewis, M. 1993. The reinvention of cultural geograph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3, no.1: 1-17.
66. Ragan, E. A. 2001. *Coastal archaeology and complex societies: The maritime cultural landscape of south Argyll (Scotlan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67.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67. London: Pion.
68. Roberts, G. 1994. The cultural landscape. *Landscape Research*, 19, no.3: 133-136.
69. Rössler, M. 2002. Linking nature and culture: world heritage cultural landscapes. In *Cultural Landscapes: the Challenges of Conservation*.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Ferrara, Italy. 10-14.
70. Rössler, M. 2006. World Heritage cultural landscapes: A UNESCO flagship programme 1992-2006. *Landscape Research*, 31, no.4: 333-353.
71. Sauer, C. 1925. *The morphology of landscape*, Reprinted in LEIGHLY. 1963. Land and life: selections from the writings of Carl Ortwin Sauer. Berkeley and Los Angeles.
72. Siririsak, T., and Akagawa, N. 2012. Concept and practice of cultural landscape protection in Thailand. In *Managing cultural landscapes*. eds. Taylor, K., and Lennon, J. 173-191. Routledge.
73. Small, C., and Nicholls, R. J. 2003. A global analysis of human settlement in coastal zones. *Journal of coastal research*, 584-599.
74. Taylor, K. 2008. Landscape and Memory: cultural landscapes, intangible values and some thoughts on Asia. In *16th ICOMOS General Assembly and International Symposium*, Quebec, Canada. 1-14.
75. Taylor, K., and Lennon, J. 2011. Cultural landscapes: a bridge between culture and n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7, no.6: 537-554.
76. The Venice Charter. 1964. ICOMOS.
77. Tuddenham, D. B. 2010. Maritime cultural landscapes, maritimity and quasi objects. *Journal of Maritime Archaeology*, 5, 5-16.
78. UN Homepage, https://www.un.org/esa/sustdev/natlinfo/indicators/methodology_sheets/oceans_seas_coasts/pop_coastal_areas.pdf (accessed March 27, 2023).
79. UNESCO Homepage, <https://whc.unesco.org/en/cultural/landscape/#2> (accessed March 27, 2023).
80. UNESCO. 2002.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a vision, a conceptual platform, a pool of ideas for implementation, a new paradigm*. Cultural Diversity Series no.1. UNESCO.
81. UNESCO. 2016. *The Future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for Marine Conservation: Celebrating 10 years of the World Heritage Marine Programme*. UNESCO.
82. _____. 2021.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UNESCO.
83. Westerdahl, C. 1992. The maritime cultural landscape. *International Journal of Nautical Archaeology*, 21(1), 5-14.
84. Wilson, C., Groth, P. E., and Groth, P. (eds.). 2003. *Everyday America: cultural landscape studies after JB Jackson*. Univ of California Press.

-
- 논문 접수일: 2023. 3. 29.
 - 심사 완료일: 2023. 5. 15.
 - 심사 완료일: 2023. 6. 12.

요약

주제어: 문화경관, 연안지역, 해양경관, 해양유산, 역사문화유산, 역사경관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문화경관 개념과는 달리 주로 해양고고학 분야 위주로만 사용되고 있는 해양문화경관 개념을 고찰하였다. 문화경관 개념에서는 해양과 연안이, 해양문화경관 개념에서는 문화경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경관주체가 느끼는 감정과 인지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왔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우리의 삶과 밀접한 근현대의 일상적 해양문화경관의 가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해양문화경관 관련 개념들의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내륙과 구별되는 연안지역의 장소, 사람, 문화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현세대가 해양문화경관의 가치에 공감하고, 보전·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안지역 해양문화경관 정책 및 연구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